



대종 대종사 열반대재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9월 28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전종정 대종대종사 1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일주문



서울 명성 어린이집 개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효암 대정사(진각종 통리)는 1일 서울 명성 어린이집 개원식을 갖는다.



'불교발심대법회' 봉행
사단법인 자비신행회 이사장 현장스님은 7일부터 제2기 한꽃불교 아카데미 불교발심대법회를 광주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봉행한다.



다보법회에 참석 법문
강릉 성원사 주지 정경 스님은 서울 갈매암회가 1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주관하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



산신각 낙성·산신 점안식
마음의 습터 죽림산사 리선행 법사는 12일 강원 횡성 죽림산사에서 개산3주년 기념 산신각 낙성 및 산신 점안식을 봉행한다.



제2회 조계사 사생대회
서울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12일 조계사 및 우정총국 일원에서 창건 93주년 기념 제2회 조계사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02)720-1390



고승대덕 초청 선사화전
불교텔레비전 부산방송 사장 정암 스님은 10월 8~12일까지 국제신문에서 '불교TV 발전기금 마련 고승대덕 초청 선사화전'을 연다.



전국불청인지지도야 연수
대한불교청년회 정성욱 회장은 3~5일 사흘간 강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20차 전국 불청인지지도야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관문사 창건 5돌 기념법회
서울 천태종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은 5일 관문사 4층 율보보전에서 관문사 창건 5주년 기념 국민화합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한·일 교육세미나 주제 발표
한국불교대학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은 9월 27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2회 한·일 교육문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했다.



'영화로 본 불교' 프로 진행
하재봉 문화평론가는 불교텔레비전 가을 개편을 맞아 13일부터 '하재봉의 영화로 본 불교'를 진행한다.

화합·교종 본찰 면모회복에 최선

봉선사 주지에 선출된 철안 스님



"머슴노릇 잘 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 9월 19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에 선출된 철안스님(사진)은 평상시 사찰의 잡무를 해오던 스님이다. 대로 주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사를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서 제1의 성지순례지로 만들 것입니다. 철안스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 종학개발연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본말사 스님과 신도 외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학자, 부녀회장 등 지역민들도 포함된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교구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구본사 최연소 주지(세남 46세)에게 아예 일이나 각종 봉사 등을 통해 제안을 받았다는 '젊은 생각'도 알려졌다. 스님 노후 복지 대책 마련, 흥법강원 재개원, 능엄학림 활성화 등 교구발전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밑그림도 제시했다. "승랍 25년 이상된 스님들에게는 재

스님 노후대책·흥법강원 재개원 등 추진

소감을 묻자 "평소 생각해보던 것을 열심히 실천하면 다 잘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하지만 "평상시 생각과 '실천'이라는 말 속에는 봉선사 발전을 위한 저지 않은 고민과 포부가 담겨있다."

"우선 1년여의 주지 선출 과정 속에서 표출했던 문도들의 감동을 봉합하고 대중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교종본찰의 면모를 되살리는 일도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봉

원을 마련해 보증을 들어주는 등 편안히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생각입니다. 80년대 초까지 있었던 흥법강원을 다시 개원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등록도 해야 하고요."

철안스님은 1976년 봉선사에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21년간 거를 성만했다. 2001년 봉선사 주지를 거쳐 현재 조계종 법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후학 위해 장학금 5억원

평생 모은 돈 쾌척 박관호 교수



동국대 박관호 명예교수(79·사진)가 교수 생활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5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아 화제다.

1958년부터 89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31년간 화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박 교수는 지난 9월 25일 홍기삼 총장을 방문해 "최근 이공계 기금 현상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가 걱정된다. 후학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서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히고 5억원을 기탁했다.

동국대는 '박관호교수 연구장학기금'으로 명명해 매년 기초 과학 분야 석·박사과정 연구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mmy@buddhapia.com

"만해정신 전하는 명소로"

만해마을 대표 신경림 시인



"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만해 정신을 전할 수 있는 명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정)에 의해 만해마을을 대표로 추대된 시인 신경림(68·사진)은 이렇게 말했다.

신 씨는 2년 전부터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정)에 의해 만해마을을 대표로 추대된 시인 신경림(68·사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만해마을 내 숙박 시설이 완

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1956년 시 '갈매'로 등단했으며, 1960년대에는 '겨울밤' '눈길' '전야' '폐광' 등으로 문단의 이목을 끌었다. 1970년 이후에는 필박반은 농민들의 애환을 담은 '농무' 등의 시를 창작해 '민중문학'의 기틀을 다졌다.

강신재 기자 thaiswhy@buddhapia.com

배움·실천... '청년뿔다' 배출

조계사 청년회장 정우식 씨



"수행에 기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배움과 실천을 이루는 수행공동체 '청년뿔다'를 만들겠습니다."

9월 20일 조계사청년회 20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정우식 회장(35·사진)은 "청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을 기본으로 전법에 매진해야 한다"며 '1인 1수행

법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수행하는 청년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와 포교능력 배양을 위한 설법대회와 집전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타종교청년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연대활동에도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a.com

사명대사 열반 393주기 추모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성은)는 9월 22일 초음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사명대사 열반 제393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법회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은 스님, 부회장 혜종 스님, 수석부회장 도원 스님, 오가든 행정부시장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제1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운봉선사 조실 스님을 비롯해 종범 중앙승가대 총장,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A SEMINAR FOR SOCIAL WELFARE OF THE RELIGION

제1회 사회복지 학습세미나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귀의 삼보하우고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에서는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3년 10월 7일(화) PM 2:00 ~ 6: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4층 Conference Hall

프로그램

Table with 2 columns: Time and Content. Includes sessions for 1st and 2nd parts, topics like 'Role and Tasks of Religious Social Welfare', and speakers like Prof. Kim Gyeon-ik.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12번지
재 단: TEL. 02)517-3052/FAX. 02)542-0519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연 구 소: TEL. 02)517-3045/FAX. 02)515-3021 www.chbuddha.com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한약음식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고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0)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나고 있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번민이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감당으로 고통을 당한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 · 한국향방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2 개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